

세계로 뻗어가는 기업

최첨단 인공 지능형 8면 자동접착기 개발



곽인효

썬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인쇄지기 업체에서 모든 기계가 전부 중요시 여겨왔지만 접착기만은 유독 '적당히'라는 단어의 수식어가 따라다녔었다.

그 이유는 인쇄 및 도무송(제품의 형태를 절단하는 작업)은 수작업으로 할 수 없었지만 접착만큼은 수작업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과거에는 인쇄단가를 책정할 때 접착 가격에 접착비는 서비스 개념으로 치부되었다.

그러나 최근 종이원단가격은 매년 오르는 반면 제품 단가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쇄시장에서의 접착기는 점차 중요해 지기 시작했다.

바로 인쇄지기 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생산성 향상' 뿐이기 때문이다.

인쇄 공정에서 불량률이 나면 종이가격과 인쇄비용만 손해를 보지만 마지막 공정인 접착에서 불량률이 발생하면 그전 공정의 모든 비용이 전부 손해를 입게 되므로 그만큼 고품질의 접착기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무한 경쟁의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고의 선택은 기술력이다” 라고 강조해 왔던 자동 접착기 전문제 작업체인 썬엔지니어링(주)(대표이사 곽인효)은 지난해 3월에 개발했던 골판지용 BUFFALO 1600에 뒤를 이어 차세대 접기 시장을 이끌어갈 새로운 모델의 신제품 접착기인 DRAGON 1000MC(8면 자동 컴퓨터 기계)를 개발하여 해외 및 국내시장에 출시, 명실상부 최고의 자동 접착기 전문 제작용체라는 명성에 걸맞게 기술력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에 위치한 선엔지니어링(주)의 공장전경

1986년 설립된 선엔지니어링(주)은 그 해 6대 생산능력을 갖추었으나 최고의 기계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기술개발 및 시장개척을 통해 현재 한해 50여대 생산능력을 갖춘 중견기업으로 성장 발전해 왔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인공 지능형 8면 자동접착기는 지난해 4월부터 개발되어 6월에 슬로베니아에 첫 수출을 하였고 올해 3월까지 9개월 동안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뿐 아

니라 국내 기업인 현대종합물산, 구미은성프린터스, 대구한성인쇄 등에 총 8台的 기계를 수주 받아 납품 설치를 완료했다.

선엔지니어링은 바이어들에게 이 기계를 사용함으로써 산업량이 대폭줄고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곽 사장은 “생산성 향상에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는 바로 인공지능형 자동 컴퓨터 접착기의 개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기존의 접착기는 숙련된 작업자만이 셋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작업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했지만 선엔지니어링의 DRAGON 1000MC 8면 자동 컴퓨터 기계는 숙련된 작업자의 기술을 컴퓨터 프로그램에 저장시켜 비숙련자나 초보자도 쉽게 접착기를 셋팅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설계됐다.

DRAGON 1000MC의 특징으로는 첫째 초보자나 단순 기능자도 누구나 조작법만 알고 있으면 쉽게 셋팅이

SUN Engineering

가능하고 둘째, 셋팅 시간을 현격히 단축 시킬 수 있다.

셋째, 박스치수 입력만으로 자동으로 자동 폴 분사장치의 셋팅이 완성된다.

별도의 GUN 셋팅을 할 필요가 없이 박스치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풀칠할 부위와 길이 등 컴퓨터에 의해 계산

된 자료를 hhs 콘트롤러로 전송된다.

폴 관련 셋팅도 컴퓨터로 자동으로 저장되어, hhs 콘트롤러 셋팅을 하지 못하는 작업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넷째, 서보모터가 장착된 자동 제어 콘베어로 인칭 속

도에서도 정확하게 콘베어를 셋팅 할 수 있고, 다섯째, 원격 제어시스템과 모니터링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서 사무실에서 셋팅입력과 작업 진행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다.

여섯째, 작업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작업자가 작업 셋팅 중에



▲ 썬엔지니어링(주)의 자동 접착기



▲ 썬엔지니어링(주)은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기계 위를 올라가야 되는 경우가 최소화 됐고, 3면 작업용 가이드 등을 에어 리프팅 장치를 사용하여 쉽게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지금까지 꾸준히 썬엔지니어링(주)이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한국 썬엔지니어링 설계실과 일본 썬엔지니어링 설계실, 서일본 야마구찌켄 연구소의 상호 삼각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축에 있었다.

각각의 네트워크 서버를 통한 실시간 상호 의견 교환 및 자료공유로 공동기술 개발의 힘을 극대화 시켰으며 그 기술

력을 바탕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된 기계 개발을 해올 수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도 썬엔지니어링은 네트워크 시스템을 더욱더 강화시킬 계획이다.

곽 사장은 “급성장하는 중국은 자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갖가지 혜택으로 외국업체를 끌어들이고 있으며 업체의 이동은 곧 생산 품목 자체의 이동으로 포장재 수요의 감소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덧붙여 “포장재 수요의 감소는 국내 인쇄지기업체의 과다출현 경쟁을 유발시키며 그것은 곧 설비투자 및 시설투자의 감소를 불러오게 됐다”

고 말했다.

새로운 수요를 창출 하기 위해 곽 사장은 이미 썬엔지니어링 설립 당시 부터 수출에 주력하였고 마침내 2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다.

동유럽,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및 남미 등 전 세계적으로 썬엔지니어링의 제품을 수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영국 FIRSPAN LTD사로 부터 추가 오더를 받아 지난 7월 출하 하는 성과도 이뤘다. 현재 썬엔지니어링은 헝가리, 보스니아, 슬로바키아, 독일, 프랑스, 중국과 상담 진행 중으로 곧 거래 성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 만족을 추구하는 썬엔지니어링. 썬엔지니어링의 눈부신 발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

이한얼 기자